

중기 옴부즈만, 영세사업자 규제 해결사

산단 분할면적 최소화 기준 완화 등 상반기 1300여건 처리

투자저해·비용유발 해소 등 고용연계형 규제 개선 주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지자체가 기업들에게 사용한 공업용수에 대해 하천배수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토록 했다. 일부 지자체는 기업들이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법령에 근거없이 하천 배수시 점용료를 하천사용료의 3분의 1을 추가로 부과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전 지자체 현황을 전수조사해 일괄 폐지했다.

또 산업단지 분할면적 최소화도 현행 900~1500㎡ 이상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 분할의 경우 900㎡ 이하로도 완화했다. 소규모 공장난립 방지를 위해 최소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사업자와 소공인 등은 산업용지 미분할 상황임에도 이같은 규제로 입주가 불가해 반복적으로 애로가 제기돼 왔다.

독립적 규제 개선기관인 중기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규제애로를 발굴해 처리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8월 올해 상반기에만 규제애로 1508건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194건 등 총 136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규제애로 발굴건수는

10.5%, 처리건수는 38.6% 증가한 수치다. 수용, 일부수용 등 제도개선은 23.6%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영세사업자 행정부담 감축, 기업판로 불편해소, 기업활동 기준규제 현실화, 소기업 창업 및 입지·환경 부담경감 등 주로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 불편·부담 해소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 고용연계형 규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기 옴부즈만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에 의한 창업기업의 인력고용 포기경험이나 인원은 전체의 2.4%, 평균 2.4명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에게 규제가 고용창출의 억압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연계형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감면제도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저해·비용유발 규제를 해소하는데 나서는 방침이다.

원영준 중기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고용창출과 부조리 규제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체 현장방문, 제안공모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옴부즈만 지원단 내부검토, 지역현장 전문가인 지자체 담당자 및 한국규제학회 전문가와 집중토의를 거쳐 규제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94.73 (-4.02)	↑ 금리 (국고채 3년) 1.81% (+0.03)
↑ 코스닥 651.67 (+3.28)	↓ 환율 (USD) 1125.10원 (-2.00)

점포 3만4376개 ... 한국은 '편의점 왕국'

인구당 점포 수 일본 추월

최근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구당 점포 수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수(상위 6개사 기준)는 3만4376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25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인구 1491명당 1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구 2226명당 1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이웃 일본보다 인구 대비 점포 수가 약 1.5배 많은 수치다. 지난 3월 말 기준 일본의 편의점 수는 약 5만6160개

이고, 인구는 1억2500여만명이다.

1989년 5월 세븐일레븐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국내 1호점을 선보이면서 도입된 편의점은 소프 트랜드 변화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에서도 1~2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나 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편의점의 급속한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지는 추세며, 전국 곳곳에 편의점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같은 편의점의 인기는 경쟁업체가 문을 여는 이른바 '근접 출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공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진형)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을 공모하고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은 주조와 금형, 소성가공 등 6대 뿌리산업 영위 기업 중 중소기업부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요지향적 개발을 위한 공정한 기술개발을 최대 1년,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해 수출성과 중심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특성화고 채용 협약 기업, 여성기업 등을 우대한다.

김진형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 중소기업이 동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매출액 신장 및 시장점유율이 증가되고 수출증대를 통해 광주·전남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360-9153.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중기진흥공단 호남연수원 '2세경영인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최명선)은 '2세 경영인 아카데미(3기)'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2010년 이래 16기에 이르는 CEO 명품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총 820여명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CEO 리더십, 경영 전략, 위기 대응능력, 조직 관리능력 향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기업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번 2세 경영인 아카데미 과정은 이러한 취지의 '차세대 경영인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창업주의 회사에서 기업경영을 승계중인 2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CEO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리더십,

변화 대응능력, 경영능력 및 조직관리(인사·재무·노무·영업 등), 미래성장전략 등의 내용을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2세 경영인으로, 교육과정은 내달 19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주제별 평균 주 1회, 총 15회 과정으로 구성되며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30명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연수비는 150만원이며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연수비의 50%가 정부지원금으로 할인돼 7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062-250-3022.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이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서 첫 차를 운전하는 승무사우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금호고속 제공>



8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사옥 본관앞에서 회사의 부실 매각을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금호타이어 영업맨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고속 휴가철 안전 캠페인

피서지 노선 안전운전 특별운송기간 선포

광주~대전 등 직행노선 개통

금호고속(사장 이덕연)은 여름 휴가철 동안 피서지 관련 노선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특별운송기간을 선포하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달 27일부터 광주~대전, 광주~명사십리 노선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운행하는 직행노선을 개통했다.

해당 노선들은 수도권에서 고속버스 탑승 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갈아타면 편리하게 해수욕장으로 바로 갈 수 있어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고속은 해수욕장 관련 노선뿐만 아니라 호남행, 부산행 등 바닷가나 계곡에 인접한 여름철 휴양지와 관련된 노선들 모두 이용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운전을 위한 특별운송기간을 선포하게 됐다.

한편 금호고속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에 업계 최초로 전 차량에 차간거리와 차선 이탈 경보장치를 장착했으며, 2017년 신차부터는 AEBS(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운행중이다. 또 향후 빅데이터를 통해 운전자 개인의 운전습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정할 수 있는 통합관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영업맨들 침묵시위

100여명 서울 금호아시아나사옥 앞에서 부실 매각 반대

더블스타로 매각 작업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의 영업맨들이 금호타이어 부실 매각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금호타이어 영업부서 임·직원과 해외 바이어 등 100여명은 8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사옥 본관앞에서 회사의 부실 매각을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무리한 부실 매각 추진이 영업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실매각추진에 해외 영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는 해외에서 신규 계약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계약 물량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에는 중동 지역에서 수십 년간

금호타이어 제품을 수입해온 은 거래상이 참석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매각될 경우 브랜드 가치 저하로 해외 시장에서도 금호타이어 제품은 외면 당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작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수출 환경 개선과 해외 거래선들의 생존을 위해 지속해서 투쟁을 해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해 초 매각설이 해외에 퍼지며 판매가 급감, 1·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또 영업이익은 201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전환했다. 올해 2·4분기 역시 실적에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 성 준 010-3342-6338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랜디니외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용 합치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